

내년에도 골재 부족난 우려

정부수급계획 주먹구구식... 대체제도 없어 가격 파동 예상

골재를 포함한 자재 부족난이 내년에도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정부의 수급계획은 건설투자 예상치에 끼워맞추는 주먹구구식이고 레미콘 믹서트럭의 8.5제, 철도타워크레인 노조 파업 등 불발변수에 대한 대안도 찾아보기 힘든 탓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골재를 시작으로 품목별 자재부족난이 이어졌지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완충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품목은 레미콘과 아스콘의 핵심 재료인 골재다.

올해 수도권 영남권 등지에서 파동을 겪었지만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내년 골재수급계획은 과거처럼 건설투자 전망치에 10억원당 골재투입 원단위를 적용하는 부정확한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수도권의 골재수요

만 해도 국토교통부 관측(6581만m³)과 업계 분석치(8062만m³) 간 차이가 1481만m³(22.5%)였다.

레미콘 1m³를 만들 때 1.25m³나 투입되는 골재는 슬래그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멘트와 달리 대체제도 없다.

자재업계 관계자는 "과거 국토부의 담당국장이 이처럼 허술한 골재 수급계획의 결재를 거부한 적도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지만 지금도 바뀐 게 없다"며 "주먹구구식 예측방식을 수습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골재 파동이 반복되고 레미콘 아스콘은 물론 골조공사 때 함께 투입되는 철근 등 자재 전반의 수급문제, 나아가 건설품질 저하 등 폐해까지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멘트도 운송량의 31%를 담당하는 철도가 노조의 5일째 파업으로 무력

화되면서 시멘트 레미콘사들의 제한 출하가 잇따르지만 정부 차원의 재발방지책은 고사하고 현 파업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레미콘은 연초부터 지속된 믹서트럭의 8.5제 근무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로 인한 출하 차질과 건설현장의 작업시간 감축을 완충할 공기재산정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다른 자재업계의 관계자는 "골재수급계획을 포함한 정부의 자재수급 관련 계획을 수습하는 동시에 신규 채취단지나 제조공장 허가과정에서 반복되는 민원도 소극적 행정 문제를 일괄적으로 풀어낼 정부 차원 대책, 시민단체 간의 협의체를 만들어 친환경적 방식의 안정적 자재 확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사과 수도권에서 '인기만점'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17일부터 20일까지 농협하나로마트 수도권 매장안재, 장흥 상남, 수원, 고양 삼송점에서 개최되는 팔도 사과 판매대진에서 최근 출하가 시작된 무주, 진안, 장수 부사 사과 판매대진을 위한 대대적인 판매전에 나선다.

또한 18일부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에 참여해 전북도 광역 브랜드 '예담제' 홍보 및 전북 농산물을 전시에 국내외 바이어 및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지난 3월부터 매일 전북농산물 통합

판촉행사를 실시해 왔으며 도내 주 출하품목인 부사 사과가 본격적으로 출하됨에 따라 수도권 공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전북농협 강태호 본부장은 "전북도 사과 대표 산지인 무진장 지역의 사과가 수도권 6개 매장에 본격 출하돼 출하 초기 소비 촉진이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사 이후에도 전북 사과가 지속적으로 출하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농업인의 실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도내 상장법인, 매출액 증가에도 순이익은 감소

코스닥 등록 기업 영업이익과 순이익 급감

전북지역 상장법인 9개사의 3분기 누적 영업실적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반면 코스닥 7개사는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17일 발표한 전북지역 12월 결산법인 2016사업연도 3분기 누적 영업실적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전북지역 12월 결산법인 9개사의 3분기 누적 영업실적을 전년동기와 비교한 결과 매출액 증가 속에 영업이익도 증가했다. 9개사의 2016년 3분기 누적 총매출액은 1조3,348억원으로 전년 대비 5.11% 증가했으며, 매출액 증가에 따라 영업이익은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230억원을 기록해 적자로 전환했다. 매출이 감소한 회사는 일진머티리

얼, 광전자, 한농화성, SH에너지화학 등 4개사였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대비 2.31%p 낮아진 108.32%를 기록했으며, 전국평균(68.80%) 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

광전자와 한농화성 등 2개사가 부채비율이 증가했다.

대상기업 9개사 중 흑자지속 기업은 일진머티리얼즈, 미원에스씨, 한농한성, 대우부품 및 SH 에너지화학 등 5개사였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전북지역 12월 결산 7개사의 3분기 누적 영업실적을 전년동기와 비교한 결과, 매출액 감소 속에 영업이익 및 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7개사의 3분기 누적 총매출액은 3,5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6% 감소했다.

매출액 감소속에 영업이익은 215억원, 순이익은 2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5.35%, 30.75% 급감했다.

매출액 감소는 7개 전종목에 걸쳐 나타났다. 하림홀딩스(39%), 신진에스엠(35%), 네페신소재(21%), 코센(16%)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대비 7.22%p 높아진 24.28%를 기록했으며 전국평균(58.4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대상 기업 7개사 중 동우와 오디텍, 하림홀딩스, 신진에스엠, 창해에탄올 등 5개사가 흑자를 기록했고, 네페신소재와 코센은 부진을 보였다. /인재용 기자

LX공사, 공간정보기술 일산 킨텍스에서 선보여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

공공기관으로서 공적책임을 다하는 LX공사가 16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국민안전처 주최로 열리는 '2016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참석해 다양한 방재기술을 선보였다. LX공사는 '합계 만들어요. SAFE KOREA' 라는 슬로건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국토안전부를 위한

공간정보관련 기술을 활용한 '침수흔적관리시스템', 산업단지 화재사고 취약지 분석과 상수도 누수위험도 분석 사례를 보여주는 '침여 형 오픈 플랫폼', LX국토정보기본도와 국가공간정보 포털을 소개하는 'LX홍보부스' 등을 설치·운영했다. 또한 국민안전처와 공동으로 '재해대응 효율화를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 많은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김순태 공간정보사업본부장은 "국민 모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국토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공사의 목표"라며 "다양한 공간정보기술로 국민행복과 국토안전에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X공사는 지난 2006년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국민안전처의 '침수흔적도 작성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인재용 기자

돼지사육 겨울 적정 관리 필요

새끼는 보온에 특히 신경써야

농촌진흥청은 겨울철을 맞아 양돈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단계별 돼지 사육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겨울철 어미돼지는 추위 스트레스 번식능력이 떨어지고, 새끼돼지는 면역기능이 낮아져 돼지유행성설사나 돼지호흡기질병 등 각종 질병에 감염되기 쉽다. 바람이 새 들어오거나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털이 거칠어지고 성장이 늦어져 생산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추사의 틈새는 막고 적정 풍속으로 환기하면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야 한다.

먼저, 젖을 먹이는 포유모돈은 사육온도를 16℃~21℃에 맞추고, 외부 온도 변화에 민감한 새끼(포유자돈)는 보온등이나 보온상자를 설치, 30℃~35℃를 유지하면서 잘 자라도록 한다.

젖 떤 새끼(이유자돈)의 젖을 떼 때는 추위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보온을 철저히 하고, 운반용 상자로 이동한다. 새 우리에 넣기(입식) 전

에는 방 온도를 30℃ 이상으로 유지한다.

임신한 돼지(임신모돈)는 사료섭취량이 줄면 체조직 손실이 늘어 번식능력이 낮아지므로 적정 온도보다 1℃ 내려갈 때마다 권장 사료 급여량에서 1%(약 20g~25g)씩 양을 늘려 급여한다.

육성비용은 하루 내 온도변화가 8℃를 넘을 경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실내온도는 18℃~20℃ 수준에서 온도편차를 줄이는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겨울철은 바이러스의 활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철저한 차단병역과 시설관리가 필요하다. 소독약은 일지 않도록 상온에서 관리하고, 내부 소독은 하루 중 부온도 변화에 민감한 새끼 배울 때 희석해 사용한다.

환기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같은 유해가스, 먼지 발생량이 증가하고, 습도가 높아지면 병원성 미생물과 박테리아 번식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절히 환기를 해야 한다. /인재용 기자

고속도로 건설현장에 IT기술 접목

첨단 IT 기술 도입으로 고속도로 건설현장 더욱 안전해진다고 고속도로 건설현장에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실시간 원격 안전관리시스템이 도입돼 건설현장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달부터 고속도로 건설현장에 '위험작업장 원격안전관제(remote control)'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험작업장 원격안전관제'는 작업자 안전모에 소형캠코더를 장착해 현장상황을 전송함으로써 관리자가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관리자는 근로자의 안전모에 부착된 리모트 캠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된 현장상황을 휴대용 PC 등으로 모니터링한 후 안전관련 미흡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작업역전 상 관리자가 임의에서 안전작업여부를 지휘·통제할 수 없는 소수 근로자 주도의 '단독작업' 시 발생하는 재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원격안전관제가 실시되면 현장 내 모든 참여자가 함께하는 다자간 안전관리 가 가능해짐은 물론 같은 시간대에 작업 중인 여러 구간의 동시 관리가 가능해지며 현장 내의 안전사고대응이 사려져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재용 기자

도내 베이비부머를 위한

창업확정형 창업과정 개강식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17일 100세시대, 인생 제2막을 꿈꾸는 도내 중·장년층 베이비부머들을 대상으로 '4050행복창업프로젝트' 창업확정형 창업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9기 창업확정형 창업과정'은 17일부터 25일까지 30시간 교육으로 중·장년층의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패 위험을 최소화 하고 경쟁력있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아이템 탐색 및 분석, 세무 및 자금활용법, 신배창업자의 실패경험을 통해 배운 성공창업 노하우 전수,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창업에 대한 필수적인 교육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전담 멘토제를 도입해 교육생과의 밀착 커뮤니케이션 강화로 부실창업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육 후에도 전문가와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내 중·장년층의 인생 제2막을 새롭게 열어들 것으로 조명받고 있는 이번 교육은 매년 4회 장단지 교육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으며, 수료 후 전북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을 통해 약 41.2%의 금리(본인부담 2.12%정도,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다름)로 최대 3,000만원의 창업자금과 1,000만원의 정착자금(창업 후 1년)이 지원된다. /인재용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